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 담론의 문화정치학*

김 종 수

(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상황은 '비정규적인 고용관계의 심화에 따른 불안정한 세대'라는 공통적인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국가 청년들의 삶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에 담긴 삶의 배경이나 상황은 각국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들이 그동안 사회를 구축해온 집단주의적 위계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문제이다. 특히 21세기에 진입하여 경제 성장의 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청년 세대가 갖게 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 점도 유사한 삶의 조건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은 21세기 IT 산업으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과 대중문화 산물을 소통의 공간으로 삼아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온라인과 대중문화 산물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청년들의 의사 표현은 정치와 무관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유희적 표현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 담론의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경제 성장기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형성해왔던 근대 제도와 관습,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속하게 되는 여러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학교 교육, 회사 생활, 정치 현실, 가족 관계 등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 위계구조, 온라인 공간, 대중문화 산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I. 서론

이 글은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년 세대’에 관한 담론의 특징을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은 정치 체제가 다르고 경제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이 역사적으로 상이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청년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는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다.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삶은 ‘비정규적인 고용관계의 심화에 따른 불안정한 세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 청년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탐색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적 인식에 관한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이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방식의 특징을 따져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이 당면한 갈등적 양상,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모색해보도록 한다.

“특정 집단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설명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과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갖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최셋별 2018:19) 세대 개념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개인 생애의 변화 과정과 맞물려 포착하는 데에 유용하다. 특히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에는 세대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 사회의 변동과 역사 발전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일은 사회의 주도권을 갖게 될 새로운 세대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순환을 통한 세대 교체 현상의 중심적 위상에 ‘청년’¹⁾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변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는 그전과

1)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상 범위는 만19-3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대 교체 과정에서 나이 든 세대와 사회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하며 사회에 진출해야 할 청년 세대는 세대적 주체로 사회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와 경제적 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정의 문제이다. 2018년 현재 출산율 0.98%, 노인인구 비율 14.3%의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불황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한 지 20여 년이 넘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 질의 악화는 청년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에 등장한 ‘88만원 세대’라는 세대명에 담긴 절박한 세대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당연시 되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에서 더 나아가 N포 세대가 된 청년 세대에 관한 문제는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 세대에 관한 논의들은 현재 청년들이 봉착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삶에 대한 고민이 한국 사회의 기본 설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며 향후 사회 존속과도 밀접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21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들은 과거에 전개되었던 청년 세대에 관한 논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 변동을 이끌며 정치적인 활약상을 보여준 이전 세대와 비교되며 21세기 청년 세대는 사회 변화의 동력을 지닌 집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세대로 이해된다. 또한 이들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큰 역사적 격변이나 재난이 없는데도 복지와 안녕을 누릴 수 없는, 번영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세대로 이해된다(전상진 2010:138 참조).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 유포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명칭들은 소비문화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매니아적인 독특한 행동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는 한다.

흥미로운 점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는 청년 세대에 관한 논의는 동아시아의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청년 사무직 노동자의 긴 노동 상태를 회사에서 기르는 동물인 것처럼 근무한다는 뜻으로 표현한 ‘사축(社畜)’이라는 말은 청년 사무직 노동자의 자괴감을 표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의 자족론을 일컫는 ‘소확행(小確幸)’ 역시 21세기에 동아시아 청년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단어의 사용이 낮은 일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의 의미 맥락이 유사하다는 점은 그들의 삶의 배경이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윗 세대나 국가를 상대로 형성되었던 유교적 관습, 예를 들어 충와 효의 이념에 대한 억압적인 인식을 절감하면서 사회의 집단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렬하다는 점도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나라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고도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의 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청년 세대가 갖게 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이철승 2019:295-324 참조).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와 고용 유동화로 전개되는 노동사회의 위기에서 기인하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청년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삶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이라는 언표를 중심에 놓고 세대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청년을 소비 주체로 인식하여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려는 자본의 힘과 그에 대응하는 청년의 상호작용, 청년을 통

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계획을 수립·운영하려는 국가권력과 청년의 갈등 관계, 집권을 이루기 위한 정치 세력과 정치적 세력화에 찬동·반대하는 청년의 이해관계가 청년 세대의 담론에는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청년 세대 담론의 주체로서 사회에 진입하고 정주하기 위해 고투하는 청년 개인의 주체적인 인식과 그들의 현실 판단 및 현실 대응의 문제는 과거 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 21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은 21세기 들어 전개된 IT 산업으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과 대중문화 산물을 소통의 공간으로 삼아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온라인과 대중문화 산물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청년들의 의사 표현은 정치와 무관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정치적인 면모를 지니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유희적 표현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기도 한다.

이글에서는 근대의 전개 과정에서 상이한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를 형성, 전개해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21세기 청년 세대 담론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삶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론적 관점에서 표출되는 청년 세대의 이해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논구하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대적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점검해보도록 한다.

II. ‘불안정성’의 심화와 동아시아 청년 세대 담론의 부상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1990년대에 경제적인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았던 일본이 1991년부터 과거와는 판이한 경제적 불황을 겪게 되며 이른바 ‘헤이세이 불황(平成不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한국도 유례없는 경제성

장의 시기를 유지하다가 1997년에 IMF 구제 금융의 시대를 맞이하며 경제적 불황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기점으로 하여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시장경제 체제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1990년대에 전개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격변은 2000년대에 진입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청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2000년대에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리잡아야 할 동아시아의 청년들은 풍요로운 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입으며 청소년기를 보냈으면서도 사회의 한 성원으로 자리잡아야 할 2000년대에는 변화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의 경제 구조에 제대로 편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 동아시아의 청년들은 과거 경제 성장과 사회 변동의 주도 세력이었던 각국의 이전 세대, 특히 자신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무기력한 세대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집단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위계 구조 속에서 성장하였고, 국가적인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며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던 부모 세대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정치적·사회적 진보를 이룩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와 비교하여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세대는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무기력하다는 자의식이 팽배하였다.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인 인식이 국가의 미래와 연관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은 동아시아 각국의 기성세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기성 세대의 청년 세대에 대한 비판은 고도성장기의 사회를 건설하였던 세대가 그 이후 세대가 지닌 개인주의적 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각국 기성세대의 비판적인 인식은 청년 세대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 세대의 탈정치적인 양상과 미

성숙함에 대한 비판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1세기 청년들이 당면한 절망적인 삶의 원인이 기성세대의 청년 세대에 대한 세대 착취 때문임을 주장한 88만원 세대론의 경우,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내고 있다. 88만원 세대론은 해방 후 고도성장의 한국 경제와 사회 변화 속에서 10-20대 청년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이 없다는, 청년 세대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를 절감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김중수 2019:51). 그렇지만 세대간 착취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88만원 세대론의 논자가 청년 세대에게 “바리케이트를 걷어내고 짱돌을 들라”고 요구하고, 이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무기력함을 비난하고 청년들이 미성숙하다고 비판하는 것(우석훈·박권일 2007:15-20 참조)을 염두에 둔다면 청년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질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21세기에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 삶의 방식을 이전과는 다른 개인주의적 속성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91년 헤이세이 불황이 시작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취업 빙하기를 겪은 일본의 청년 세대를 “로스제네로스ジェネ(Lost Generation)”라 불렀는데, 이 청년 세대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주업으로 삼는 ‘프리터(フリーター)’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이정화 2017:268 참조). 일본의 기성세대가 경제적 불황이 심화되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불안정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 프리터들을 “사회나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생활습관이 나쁘고 건전한 노동관을 갖추지 못한 존재,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규고용직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해나가지 못하는 젊은이로서”(이정화 2017:269) 이해하는 것도 집단주의적 의식을 기준으로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비판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일본 사회에서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에 처한 청년 세대에 대해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인식과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비판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청소년기에 시장 경제 체제에 따른 경제 성장과 1가구 1자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1980년대생을 중국에서는 “바링허후 80後”로 부르며 이들에 대해 과거 세대와는 다른 인식을 가져왔다. 중국의 바링허후들은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2000년대에 중국의 사회주의가 와해되면서 경쟁이 심화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록 청소년기까지 풍요로운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에 한 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일할 능력이 없을 때는 나라에서 일을 분배해 주었지만, 우리가 일할 나이가 되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일을 찾아야만 겨우 굶어죽지 않을 만큼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집이 나왔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되자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렸다(리준링 2016:154).

위 인용문은 중국의 바링허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입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세대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바링허후를 바라보는 중국의 기성세대의 입장은 매우 비판적이다. 중국의 기성세대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자랐으면서도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바링허후들의 소비행태를 보면서 이들을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세대’, ‘자라서도 누리는 세대’라고 말하고 ‘가장 책임감 없는 세대’, ‘가장 이기적인 세대’라고 평가한다(리준링 2016:144). 여기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21세기 청년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이는 청년 세대에 대한 세대론적 인

식은 각국이 처했던 경제적 격변의 상황에서 비롯된 고용 유연화의 심화가 파생한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삶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청년 세대가 청소년기부터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의 상황을 근거로 청년 세대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성장통으로 치부하거나 이들의 낙약함, 미성숙함으로 이해하고 그같은 문제의 원인이 기성세대의 집단주의적 가치의식에 반하는 개인주의 성향에 있다고 파악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청년 세대에 관한 세대적 인식의 괴리는 청년 세대를 대상화하여 그들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사회적 규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1세기 청년 세대를 소비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소비자로서 간주하여 그들이 지닌 탈정치적인 성향의 문화수요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청년 세대는 풍요 사회의 대표적인 소비자로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매니아적 행동 특성을 가진 세대로 이해된다. 이들은 초국적 자본주의 사회 속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문화 산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자라온 사람들이고, 바로 기술 혁신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가장 발빠르게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들을 소비할 소비자로 간주된다. 21세기 청년 세대를 “Z세대”, “MZ세대”, “A세대” 등과 같이 명명하는 세대명 속에는 청년 세대를 소비 문화의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청년 세대를 국가 경제 생산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통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불황이 야기한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정책을 각국이 전개하였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한국)이나 ‘청년자립·도전계획(若者自立・挑戦プラン)’(일본)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같은 국가 사업을 통해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은 국가 경제의 노동력 확보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작업이었다. 이같은 사업들이 청년에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청년의 직업적인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승렬 2011:38 참조)으로 의의를 가지지만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집권 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의식한 통치 행위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하기보다는 국가적 정책의 당위 속에서 청년을 통치하려는 의도가 농후하였다. 특히 “나의 중국몽 - 노력하는 청년이 가장 아름답다(我的中国梦-努力的青年最美)”와 같은 중국의 관방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청년 세대를 효과적인 통치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몽’은 중국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화민족의 부흥과 재건에 대한 호소, 그리고 중국 내부의 단합과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이상을 일치시키려는(고윤실 2015:159 참조) 의도이지만 실제 청년 세대들은 치열한 경쟁과 생존문제로 인해 정서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한 청년 세대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국가의 청년 세대들은 자신들의 삶에 놓여있는 불안정성을 공통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청년 세대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고통은 거주난과 취업난이다.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빈곤과 박탈감을 실감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같은 사회·경제적 고통을 사회의 기성세대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청년 세대를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과 거주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며 이것에서 비롯되는 외부와의 관계로부터의 단절이 가져오는 정신적 고통이나 생존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정서적 위태로움의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삶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에 의해 대상화된 존재로서의 청년세대와는 다르게, 21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담론의 주체로서 청년 세대의 자의식을 뒤이어 탐색해 보도록 한다.

Ⅲ. 청년 세대의 자의식과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의 활약

과거와 비교하여 21세기 동아시아 각국 청년 세대가 봉착한 큰 문제는 그동안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이라 여겨졌던 ‘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실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삶의 추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청년 세대의 자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청년 세대들이 현실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온라인과 대중문화 산물들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 세대들은 이들이 청소년기였던 1990년대부터 발달된 IT산업과 풍요로운 소비대중문화 산물들을 향유하며 성장하였다. 현실 정치 공간에서 발언하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과 활약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중문화 산물에 담긴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익숙한 것이다. 대체로 청년 세대들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자기 풍자와 같은 형식을 통해 현재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같은 자신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에 담긴 현재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적 인식을 포착해 낼 수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부르는 세대 명칭에 담긴 내용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암울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동아

시아 각국 청년 세대가 스스로에게 붙인 세대 명칭의 공통적인 요소 속에는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의미나 쓸모가 없는 존재인 미취업 고학력자를 의미하는 ‘잉여’(한국)(최태섭 2013:80)로 청년 세대를 스스로 규정하거나, 계층 상승에 대한 욕망을 접고 하류에 그저 머물며 매사에 삶의 의욕을 잃은 빈곤 청년세대가 스스로를 ‘하류세대’(일본)(이광석 2018:180)로 부르고 있다. 또한 대만의 청년 ‘체념’ 세대인 ‘병시파이(붕세대, 崩世代)’나 중국에서 집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을 ‘다오쓰(屌絲)’라고 칭하며 자조하는(고운실 2016:11) 것이 모두 그렇다.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도 제 역할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패배자 의식이 자신들의 세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취업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회사에 매여 일만하는 청년들을 자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과는 거리가 먼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명칭들이 취업난 속에 있는 동아시아 청년세대의 암울한 현재의 자기 비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 도시의 거주난을 반영하여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세대명도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민달팽이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집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를 비유하고 있다면, 중국의 청년들이 자신들을 ‘달팽이집(蝸居)’로 부르는 것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1세기 청년 쪽방형태의 기거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넛카페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주거난을 반영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가 봉착하고 있는 취업난과 주거난을 바탕으로 자조적인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어 이름붙인 세대 명들이 현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저 현재적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세대의 모습을 담은 세대명칭도 있다. 일본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0년대에 접어들어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자족하는 청년세대군을 일컬어 한때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18)라는 명칭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체념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달관세대’라는 명칭이 유행하였다.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불계청년(佛界青年)’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해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려는 청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장예림 2019:14). 이러한 세대명은 자발적인 포기과 체념의 정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샤오췌싱, 小確幸)’이 소소한 오늘의 안락에 안주하는 소극적 삶의 방식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에 만족하려는 청년 자족론(이광석 2018:185)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21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자신들의 정서와 사고를 표출하는 공간이자 일상적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뉴미디어 환경이다. 온라인 공간은 청년 세대들이 현실에서 겪으며 갖게 되는 자신들에 대한 다양한 자조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자기 감정을 완화시키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곳이기도 하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인터넷, 정보기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발전으로 동아시아 청년 세대들은 인터넷의 간편함을 누리면서 가상사회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이들은 인터넷 세계와 Social Network Service(SNS)에서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공간을 빌려 서로 교류하고 가상 세계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인터넷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 기호를 활용해 특정한 인터넷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하위문화와 온라인 씨클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흥미 집단을 만들기도 한다. 청년세대들이 인터넷공간에서 형성된 온라인 씨클

과 언어체계에 높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는 실제생활의 사회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텐펑 2018:133 참조). SNS와 블로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의 교제가 일반화되고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청년 세대들의 삶은 온라인 정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케모토 노바라(嶽本野ばら)의 소설 『도오리마(通り魔)』(小学館, 2014)는 현실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의존하게 되는 공간은 인터넷 세계였고, 그가 그곳에서 활기를 얻고 위안을 받았으나 그곳에서 사기를 당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 현실 사회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이다(김태경 2018:151-169 참조).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SNS,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가상 공간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한 청년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소설의 이야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도 해당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적인 상황은 단기 노동의 불안정한 삶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그들을 통제하는 장치로 자리잡게 된 스마트폰과 인터넷 공간의 위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²⁾

사실 디지털 미디어는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현실에서와는 달리 친밀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현실에서 겪은 좌절감을 표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은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자유로움을 활용한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상대화하며 현실을 자족하기도 하고, 기성 세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경향 중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2) 이광석(2018:196)은 이탈리아 사상가 랏자라또Maurizio Lazzaroto가 말한 ‘기계적 예속(mechanic enslavement)’의 예로 스마트폰과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서울의 알바 청년들에게 끼치는 테크노-기계예 예속되는 노동문화를 분석하고 있다.

낡기도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20-30대 청년들이 주축인 네티우익이 급증하는 까닭은 인터넷 공간에서 안전하게 상대를 두들겨 팼 수 있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여성 혐오 등은 희망없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극단적 표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대중문화 산물로 표출되는 청년 세대 의식과 감수성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다른 세대와 달리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의 의사 표시와 인적 교류를 즐기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재구하고 있다. 상상력의 원천이며 놀이의 대상이고, 즐거움을 제공받는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21세기 대중문화 산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희적 성격은 청년 세대의 의식과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지니고 있는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사실 이전 세대들과 달리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들이 즐기는 대중문화 산물들은 사회 참여적이거나 혁명적인 변혁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지 않으며 미래 비전에 대한 분명한 고민 등도 보이지 않는다. 대중문화 산물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기성 세대들이 그동안 추구해 왔거나 바라는 것일 것이다.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대중문화 산물의 엄숙하면서 진지한 면모와는 다르게,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대중문화 산물들은 유희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21세기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대중문화 산물에서 특징적인 장르는 웹툰의 재미물이다. 한국에서 발달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은 인터넷 환경의 확장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 청년 세대들이

가장 즐기는 대중문화 산물이다. SNS의 확산과 더불어 그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웹툰은 인터넷의 사회성을 그 본질로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적극적 주체인 청년세대의 문제들을 그 어느 매체보다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웹툰을 생산하는 주요 주체가 주류 미디어와 달리 대부분 청년세대에 의해 생산되며 주요 수용자층 역시 청년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웹툰에서 재현되는 청년세대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일방향적이 아닌 쌍방향적 수용과정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승 2014:32 참조).³⁾ 웹툰이 청년들에게 크게 사랑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병맛’이라는 청년 세대의 향유 코드와 연결되는데⁴⁾, 흥미로운 점은 웹툰에서 좀비물이 각광받는다는 점이다. 사실 개성 없는 맹목적 욕망의 덩어리인 좀비가 생존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은 목시록이나 파국의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김홍중 2015:192 참조), 좀비 서사의 유행을 통해 생존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뿌리깊게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비의 시간>(이경석, 2010)과 같은 병맛 좀비물과 <당신의 모든 순간>(강풀, 2010)과 같은 행복한 좀비의 존재를 그리고 있는 웹툰이 유행했다는 점은 현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년 세대의 자의식이 반영되고(송아름 2013:219 참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에 등장하는 초월적인 인연론이 청년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산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2017), <날씨의 아이>(2019)와 같은 작품이 청년세대들을 열광시키

3) 이종승(2014)에 따르면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생>과 같은 웹툰들은 주로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스펙 우대 사회, 고용 불안정, 비자발적 실업, 취업난, 계약직 차별, 사회 불안정 등의 청년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해결되어 가는지를 각 등장인물들의 세밀한 심리 묘사를 바탕으로 그려냄으로써 대중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4) 웹툰의 병맛 코드에 대해서는 김수환(2011:96-122) 참조.

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최근 일본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면서 장래의 불투명성이 심화된 상황이 미래보다는 일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편한宿命주의를 용인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2011년 자연대재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宿命주의는 더욱 깊어진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宿命으로서 받아들이는 청년세대는, <너의 이름은>에서 보이는 것처럼 운명, 끈/인연 같은 가까운 사람들, 과거 지향적인 것들 가운데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렇게 좁아진 관계의 울타리는 역으로 인간 관계를 리셋하고 싶은 욕망을 키우기도 한다(후쿠시마 미노리 2017:284 참조). 이와 같은 청년들에게 보이는 끈/인연, 운명, 가족 등 과거 지향에 기반을 둔 자기 긍정형의 인정 욕구는 내적 세계로 퇴행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지며, 타자와의 관계에 기반한 사회성·관계성 구축으로 눈을 돌리는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안이한 감정론과 배외주의를 낳는 토양으로까지 진행된다는 점(후쿠시마 미노리 2017:285 참조)에서 최근 청년 세대들에게 문제적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청춘회고’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영화, 마이크로영화, 웹드라마, 인터넷 소설 등 젊은 세대에게 친근한 영상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춘회고물이 유행하고 있으며 웨이신, 웨이보 등을 통한 소통으로 젊은 세대 안에서의 담론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청춘회고물은 학창시절의 꿈과 낭만, 직장생활에서의 일과 사랑, 실패와 성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의 청춘회고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장년층의 추억 찾기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현재 삶의 과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냉혹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자기반성과 자아 연민을 특징으로 한다(고윤실 2015:141 참조). 주바다오 감독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2011)이나 <청춘에게>(2013)같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청춘 회고’는 그 소비층이 80-90년대생들로, 생존이라는 일상의 투쟁에서 비롯된 좌절과 우울, 자기 연

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윤실 2015:143 참조).

이와 같이 21세기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 사회에서 제대로 정주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대중문화 산물에 투영하여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치열함에 대한 환멸은 좀비의 세계조차 따뜻하게 그리는 허구에 열광하거나,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를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세계 인식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인연론을 소환하여 자기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V. 청년 세대 내 불평등 문제에 관하여

21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되는 청년 세대 담론은 청년 세대가 처한 고용유연화에서 비롯된 삶의 불안정성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그렇지만 청년 세대 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세대 간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다는 점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것은 세대 담론이 가지게 되는 복합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세대 내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경제적 계급의 차이와 계층적 인식 차이, 그리고 성차의 문제가 세대 내 불평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은 청년 세대 담론이 대학생 혹은 대학 졸업생의 상황을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 비판될 수 있다. 20세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사회의 중심 인력이 ‘대학-취업(사무직)-결혼’의 생애 과정을 거치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들에 한정해 이해되어왔던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대학에 진학하지 못(안)한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생애 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청년 세대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는 대졸자와 비교되는 고졸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성찰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특수노동자층에

대한 관심(한국의 경우)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바링 허후의 세대적 성격에서 소외되었던 농민공 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2010년 자살자를 양산한 팍스콘 공장의 사례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며 잊혀지는 21세기 청년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히키코모리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에 대한 관심이 청년 세대 담론의 전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졸자 중심의 청년 세대 담론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부각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세대 내 계급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세대 담론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우선 고용불안정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과 안정된 고용에 속하는 청년 간의 경제적 격차의 문제가 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 청년들의 삶은 안정적인 고용으로 보호 받는 청년들과 대비되게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열패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모 재산의 상속 가능 유무에 따라 청년 세대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 있다. 한국에서는 수저 계급론으로 불리며 집안의 재산 유무에 따라 ‘금수저/흙수저’로 나뉘어 사회 진입과 정착 과정의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부이대(富二代)’, ‘관이대(官二代)’, ‘농이대(農二代)’ 등 재력의 여부가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지고, 부모세대의 부와 권력이 그대로 자녀세대의 계급처럼 답습되는 상황을 청년들이 절감하고 있다. 또한 ‘1억 총중류(一億總中流)사회’에서 이제 ‘격차사회’로 추락한 일본의 사정에서 보면, 청년 삶의 불안정 상태는 계속해 대물림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출신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견고한 계층 간의 좁혀지지 않는 두꺼운 벽이 청년 세대 내 담론에서도 완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년 세대 담론이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에 집중하고 특히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삶이 부각되는 상황이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녀 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남녀 합계 청년 비정규직 비율로 청년취업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상황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청년 남자 위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사노 미사에 2017:54 참조). 남성의 상황에 따라 취업, 결혼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에서도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기존의 사회 복지 제도가 아버지와 엄마, 자녀 2명의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표준으로 보는 ‘표준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청년세대 상당수가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복지를 표준 가족에 맞추게 되면 가족 구성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복지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VI. 결론

청년 세대의 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과 기존에 전개되어 왔던 국가의 통치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청년 세대 담론의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경제적 성장기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형성해왔던 근대 제도와 관습, 규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속하게 되는 여러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학교 교육, 회사 생활, 정치 현실, 가족 관계 등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의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족-학교-

회사-국가'의 완고한 위계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사회의 일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4인으로 구성된 표준가족 중심의 사회 복지 체계를 1인 개인의 최소 단위로 해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동안 학교에서 졸업 후 회사의 취직으로 이어지던 생애 과정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취직한 회사를 중심으로 누리게 되었던 복리 후생 제도를 국가가 일임하여 관리해야하는 시대에 진입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체제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가족 의존도가 높았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의 개념과 역할이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더 큰 사회적 위협에 직면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동아시아의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깊은 숙고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고투는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고윤실(2016), 「당대 중국 ‘청년의 소멸’과 정서적 구조의 변동」, 『중국 문화연구』 34. 중국문화연구학회, 1-21.
- 고윤실(2015),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 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몽’」, 『중국현대문학』 72. 한국중국현대문학회, 137-163.
- 김수환(2011), 「너희가 병맛을 아느냐」, 백소영·엄기호 외,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이파르.
- 김종수(2019),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 세대 갈등에서 세대 계임으로!」, 『비교문화연구』 56.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45-63.
- 김태경(2018), 「분노사회 일본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문화 분석」, 『일본학연구』 54. 일본학연구학회, 151-169.
-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179-212.
- 리준링(2016), 「빠링허우 현상의 형성과 그 변화 과정」, 강명구 외, 『한중일 청년을 말한다』, 진인진.
- 사사노 미사에(2017),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 - 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 『일본연구』 72.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 37-64.
- 송아름(2013),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30. 대중서사학회, 193-221.
-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세대』, 레디앙.
- 이광석(2018), 「도쿄와 서울을 잇는 청년들의 위태로운 삶」, 『언론과 사회』 26-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40-215.
- 이승렬(2011), 「일본 청년고용대책의 시사점」, 『노동리뷰』, 2011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31-41.
- 이정화(2017), 「일본 현대소설에서 보이는 프리터 표상의 양상」, 『일본학보』 110, 일본학연구소, 267-283.

- 이종승(2014), 「TV드라마웹툰에서 반영된 갑을관계/청년세대 문제와 법제(개)정의 관계」, 『씨네포럼』 18. 동국대 영상미디어센터, 309-343.
- 이철승(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 장예림(2019), 「‘상실의 문화’를 내면화하는 방식-중국 ‘90後’ ‘불계회 사원(佛系职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예술융합』 3-2. 인문사회과학예술융합학회, 13-29.
- 전상진(2010), 「세대 경쟁과 정치적 세대」, 『한독사회과학논총』 20-1. 한독사회과학회, 127-150.
- 최셋별(2018),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태섭(2013), 『잉여사회』, 웅진지식하우스.
- 텐펑(2018), 「새로운 청년 세대의 가치관- 태도, 원인과 대책」, *Sungkyun China Brief* 20. 성균관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30-136.
- 후루이치 노리토시(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연숙 옮김, 민음사.
- 후쿠시마 미노리(2017), 「<너의 이름은>에서 일본 청년세대의 사회성 부재를 읽는다」 『문화과학』 91. 문화과학사, 269-289.

❖ ABSTRACT

Cultural Politics in the Discourse of the East Asian Youth in the 21st Century

Kim, Jong soo
Kyung Hee University

In the 21st century, the situation of East Asia's 'youth generation' can be summarized as 'an unstable generation due to an extensive recruitment of temporary employees '. This problem is common among the youth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Moreover, they are trying to unshackle the collective hierarchical structure that was built by the past society. In particular, the current generation of young people today face the problem of economic inequality, which has emerg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ng perks of economic growth that entrenched the 21st century. Young people's expressions of opinion was emphasized in the era of the internet. Moreover, popular cultural products today have nothing to do with politics, but they associate their identity with the youth through entertainment channels. By analyzing the disposition of East Asian youth in the 21st century, we found that modern systems, customs, and norms that East Asian countries followed in the 20th century are no longer valid today. Therefore, we need to reflect on everyday life of the 21st century, which is unlike life in the 20th century, wherein a person underwent four stages, namely, school education, professional life, political reality, and family relations.

Key Words : East Asia, Youth-Generation, Hierarchical Structure, the space of online, Popular cultural products, In the 21 Century

■ 논문접수일 : 2021. 05. 10

■ 심사완료일 : 2021. 06. 01

■ 게재확정일 : 2021. 06. 02

